

‘정치적 짝짓기’에 밀린 광주·전남

첨단의료단지 충북 오송·대구 신서 선정…탈락 지자체들 반발

매머드급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10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가 최종 선정돼 우수한 의료 인적자원 및 시설과 관련 첨단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주·전남이 유치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회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신청한 10개 지역 가운데 두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2038년까지 5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2013~2037년)의 기대효과는 의료산업 45조원, 여타 산업 파급효과 37조2천억원 등 생산증가 82조2천억원, 고용창출 38만2천명에 달하며,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전 경쟁을 벌여왔다.

광주시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 내 의료산업은 물론 관광산업 등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선정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충북지역을 배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특히 대전

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정부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선정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평가절차 및 평가단 구성 등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최종 정량평가 결과 대구 신서혁신도시만이

A등급,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6개 단지가 B등급을 받았으며, 이중 교통 접근성이 좋고 식약청 등 국책기관의 유치가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충북 오송이 최종 선정됐다.

따라서 광주는 B등급에도 들지 못해 정부 평가에 대한 준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충분히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상지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선정되고 광주와 전남이 탈락한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3개로 나눠 영남, 호남, 중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주장했다.

/박지경·윤현석 기자 jkpark@



DJ 생가 방문

10일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수심에 가득찬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난의 세월 이겨왔듯 다시 일어설 것”

DJ 유동식 공급 재개…하의도 주민들 패유 기원

하늘도 감응하는 것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荷衣島) 하늘에는 하루종일 짙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관련기사 4·7면>

하의도 앞바다의 파도는 잔잔했다. 주민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결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패유를 기원했다. 10일 오전 10시20분 하의도 후광리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높이 1m의 토담으로 둘러싸인 폭초 초가(면적 59.5㎡)와 토담 초가(면적 16.5㎡)에는 김 전 대통령의 옛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김 전 대통령의 노

벨경화상 수상·재임 시절 APEC 정상회담 기념·화창시절 사진 등이 방문객을 맞고 있었다.

사진은 모두 웃음 짓는 얼굴이었다. 온화한 미소처럼 생가는 고요하고 평온했다. 휴가철을 맞아 찾는 이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안채에 걸린 ‘새천년의 꿈’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친필이 적힌 액자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두 자녀와 생가를 찾은 배현희(여·46·경기도 광명시)씨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기분이 새롭다. 가난한 섬에서 태어나 훌륭한

자리까지 오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나온 일들을 자녀들에게 꼭 한 번 보여주고 싶었다”며 “건강이 빨리 회복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동네 곳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온갖 풍상과 고난의 세월을 견뎌낸 그가 이번에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생가 옆집에 사는 윤복려(77) 할머니는 “지난 4월 24일 방문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성질 않다니 걱정스럽다. 하지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인 만큼 오래 사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양재운(51)씨는 “주민 모두

가 패유를 바라고 있는 만큼 김 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 수치가 불안정한 상태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10일 유동식 공급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현재 호흡곤란증후군 등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 전 대통령이 고령과 지병 탓에 다장기부전 증상이 있어 신체 기능이 서서히 저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의도=이종행기자 golee@/신안=조완범기자 wncho@

알림



2009 광주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건강걷기 대회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 개최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마라톤·건강걷기대회’가 오는 9월 27일(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국가별 분과 33개국이 참가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알리고, 또 새로운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5·1마라톤을 치내해 개최되고 있는 전통의 광주마라톤이 이관한 이번 대회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의 편의를 전담해 제공할 주일한 부설에 기념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제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이번 ‘마라톤·건강걷기대회’에 참가해 축하와 분위기를 한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9월27(일) 오전 9:00~11:00
- 장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종류 : 마라톤, 하프마라톤(21.0975km), 건강걷기 코스(4.5km)
- 참가비 : 2009년 8월 31일(일) 전(현)까지 접수 (마라톤 하프마라톤 1,000원 / 건강걷기 2,000원)
- 참가비 무료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전화 : (062)220-0541

- 주최 : 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 주관 : 광주일보사, 국제기능경기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법무차관 황희철 광주고검장 안창호 광주지검장 길태기



<황희철 차관> <안창호 고검장> <길태기 지검장>

법무부는 10일 황희철(사법시험 23회·광주) 서울남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노환균(24회·경북)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5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2일자로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안창호(23회·대전) 대전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 승진, 임명됐고, 길태기(25회·서울)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박영철(23회·경기) 광주지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주고검 차장에는 이견리(26회·함평) 서울북부지검 차

장, 광주지검 차장에는 강경필(27회·제주) 국회 전문위원이 승진, 임명됐다. 정동민(26회·경남) 광주지검 차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이동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